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본격 운영

정읍·고창·부안 공동 추진... 총사업비 107억원 투입, 2주동안 종합시운전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지난 16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정읍시 영파동 404-2번지 일원에 조성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종이 등의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이다.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에서 각각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내구 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인해 선별작업의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공동 신청해 추진하게 됐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부지 2만7,827㎡에 건축면적 2,877㎡(871평)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19억, 도비 6억, 시·군비 82억)이 투입됐으며, 사업비는 정읍시가 50%,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25%씩 부담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재활용 선별동과 압축 파쇄동 선별품 저장동 3개 동으로 이뤄졌다. 센터에서는 자력선별기와 광학 선별기 등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통해 하루 30톤 규모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다.

정읍시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준공 후 시설을 정비하고, 인력을 채용했으며, 고창군·부안군과 협의해 운영비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관련해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지난 16일 개관식을 연 가운데,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은 16일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도·시·군의원, 기관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센터 건립에 공헌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으며, 감리단(시공사)의 안내로 시설 관람이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설비 보완과 수동 선별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3개 시·군에서 나

오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재활용 대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시·군이 함께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2021년 정부혁신 100대 과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내 농수산물, 日 전역서 판매

김관영 도지사, CPF Japan·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와 각각 협약

전북의 농수산식품이 일본 전역에서 판매된다.

일본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방일 첫날인 지난 15일 CPF Japan사를 방문해 오니시노부다다 법인장과 전북 농수산물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CPF Japan사는 태국 제1위의 대기업인 CPF그룹의 계열사로 세계 최대 사료 생산업체이면서 새우 수출 및 세계 3대 가금류 생산업체인 태국 CPF사의 일본법인이다.

2004년에 설립한 CPF Japan사는 그동안 일본에서 식품 유통 사업을 벌여 탄탄한 도·소매 유통망을 구축한 회사로 CPF Japan사 유통망을 활용해 전북 농수산식품이 현지 매장에 입점하게 되면 물론 홍보 효과가 매우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또 방일 이튿날인 16일에는 일본 내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경수 기자

이로써 미국 LA에 이어 일본으로 전북 농수산물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김 도지사는 일본에서 한국 농식품을 취급하는 36개 회원사가 모여서 지난 2005년에 설립한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를 방문해 김규환 회장과 전북 농수산식품의 판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는 일본 현지에서 한국농식품을 수입·유통하거나 외식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회원사 유통매장 등을 통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홍보·관측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서 도지사가 세계 시장을 향한 세일즈맨의 선봉에 서겠으며,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군산 물김 위판장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 생산 동향 청취·위판장 점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군산시 신치항 내 물김 위판장을 찾아 김 생산동향과 위판살태를 점검하고 김 양식 어업인으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물김 위판장에서 김 생산과 위판 동향을 청취하고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위판장 시설과 위판 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 신시도 33센터에서 현장중심 소통 간담회를 열어 김 양식어업인들과 김 양식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도·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위해 머리 맞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정기회의...사업 추진경과·개선방안 등 논의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지난 16일 '제2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인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희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장과 함께 26개 참여단체의 대표·실무 위원과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및 아이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의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및 연대회의의 구성단체별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전북도에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려풀 전북'에 대한 취지와 10대 실천과제 안내 및 실천 메시지 퍼포먼스 등도 진행됐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공감대 확산

전북도-김제시, 김제시의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설명·설치 추진상황 보고 등 진행

군산·부안서도 진행... 시군 지방의회 이해 협력 추진동력 확보

전북도와 김제시는 지난 16일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김제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논의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자리다. 전라북도의 추진상황 공유 필요성 인식과 김제시의회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

단체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 설명 △그간 업무 추진상황 안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향 △김제시의회의견수렴 및 토론 △기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원은 새만금과 3개 시군의 연계 도로망 구축과 스마트 기반 산업, 농업, 관광 등 지역 내 우수자원의 광역적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등 새만금 특별지방자치

단체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 및 정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군산시, 부안군 의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군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상운 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시군의회의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며,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김제=곽노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